

Jeffrey Hudon 박사, 성서 고고학, 세션 26, Andrews University Sigmund H. Horn 고고학 박물관 하이라이트

© 2024 Jeffrey Hudon 및 Ted Hildebrandt

성서 고고학을 강의하는 Jeffrey Hudon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6, Sigmund H. Horn 고고학 박물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미시간 주 베리언 스프링스의 앤드류스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혼 고고학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가 전시하고 있는 이 중요한 유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100년이 훨씬 넘는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이 석고 모형이 제작된 시기를 1880년경으로 추정했습니다. 자, 이 석고 모형은 왜 제작되었습니까? 19세기에 성지로의 여행은 매우 부유하고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종종 폭력이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성지에 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달에 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19세기 초와 그 이전에는 지형과 장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기 위해 살펴볼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850년대부터 시작된 사진의 출현은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지형을 보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을 수는 없을 만큼 일정량의 모형이 제작되었고, 이것들은 심포지엄과 국가 박람회, 대규모 행사, 공개 행사에 전시되었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이것이 1880년쯤에, 어쩌면 1880년대에, 아마도 그 10년에

건설되었을 것이라는 최선의 추측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1890년대 이후에 건설된 예루살렘의 랜드마크는 이 모델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좁은 시간 범위에 대해 더 간결하게 날짜를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모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150년 전의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모델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 주변의 도시 지형, 즉 토지의 지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이 모든 것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도시 자체는 대략 80%~90%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밖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펴보며 지리적, 지형적 특징을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모델의 바로 가장자리에는 올리브 산 정상에 있는데, 이는 실제로 현재의 히브리 대학교, 스코푸스 산, 하하트 소핏, 프렌치 힐 부지에서 뻗어 나온 능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계곡이 있고, 올리브 산과 진딧물 산 사이의 능선이 갈라지는 지점까지 능선을 따라 갑니다. 이는 모델의 가장 먼 가장자리에 있는 또 다른 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람산 정상에 있는 이 단지는 사실 승천교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4세기에 헬레나 여왕에 의해 시작되고 건설되었습니다. 올리브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모델의 가장 먼 중앙에는 힌놈 계곡의 경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예루살렘의 남쪽 지평선과 접하는 남쪽 능선으로 불리는 약의 언덕 의회로 계속해서 지도나 모델에서 벗어납니다. 지도의 이쪽에는 유역 언덕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안타깝게도 모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 바로 앞에, 도시의 북쪽에서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고지대가 있다.

다시 한 번 방향을 잡기 위해 이것은 동쪽, 북쪽, 서쪽, 남쪽입니다. 자, 여기 있는 계곡까지, 여기 이 지역에서 시작하여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의 동쪽을 따라 내려가는 기드론 계곡은 이 남동쪽 언덕을 지나서 계속 내려갑니다. 다윗의 성,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 광야까지 내려가고 사해를 비우게 됩니다. 식별하기 매우 어려운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약간의 부분은 티로포에온(Tyropoeon) 또는 중앙 계곡(Central Valley)이라고 불리며, 요세푸스(Josephus)에서는 치즈 제조업자의 계곡(Valley of the Cheesemakers)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동쪽 언덕과 서쪽 언덕을 분리했는데, 아마도 여기 있는 다메섹 문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또한 이 모든 계곡이 고대에는 훨씬 더 깊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천 년 동안의 사용과 잔해물이 쌓여 이 계곡의 표면이 융기되었습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또 다른 골짜기는 여기에서 시작되어 힌놈의 골짜기, 즉 힌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인 게이벤힌놈인데, 이 골짜기는 성읍의 서쪽을 따라 굽이쳐 내려가다가 동쪽으로 휘어져 기드론 강과 티로포이온 계곡과 합류한 다음 유대 광야로 흘러갑니다.

이것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계곡들이다. 보시다시피 예루살렘은 동쪽, 서쪽, 남쪽 측면에서 상당히 잘 방어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는 해자나 참호 역할을 할 계곡이 없다.

이곳은 예루살렘이 가장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역사상 예루살렘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의 대부분은 북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880년에 존재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예루살렘 구시가지 밖의 일부 중요한 유적지는 키드론 계곡에 있는 일부 유적지입니다.

우리는 이곳 근처에 겿세마네 동산의 부지인 만국교회의 장래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좋아, 그리고 오늘날 올리브 산을 덮고 있는 거대한 공동 묘지에는 나중에 개발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올리브 산이 기원전 2000년대부터 예루살렘의 공동 묘지 중 하나인 예루살렘의 묘지로 사용되었지만 아마도 더 일찍. 도미누스 플라비트(Dominus Flavit)에서는 후기 청동기 시대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출애굽 당시나 아마도 그보다 더 이전의 때일 것입니다. 이제 공격의 언덕이 여기 있고, 이 경사면의 공격의 언덕 아래에는 실완이라는 아랍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실로아입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바로의 딸의 무덤, 왕실 청지기의 무덤 등이 발굴되어 지도화되고 출판된 무덤을 포함해 공동묘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남동쪽 언덕을 가로질러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원래 정착지였던 예루살렘의 가장 오래된 부분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지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기혼천 때문에 이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유일한 물 공급원이었으며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정착지는 금석 시대와 초기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기원전 2000년 이전 초기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다윗 성에서 한 집을 발견하고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 지난 100년 동안의 최근 발굴, 특히 최근에는 몇몇 이스라엘 학자와 고고학자들에 의한 발굴을 통해 구약성서 시대의 성벽, 특히 8세기와 7세기 성벽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서 많은 정보가 발견되었습니다. 방어벽은 물론, 당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방어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느헤미야가 건축한 후기 성벽도 포함됩니다.

여기 티로포에온 계곡 건너편에는 서쪽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시온산으로 잘못 불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시온산은 성전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고대에 이 서쪽 언덕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또는 여기 우리가 오래된 도시에서 볼 수 있고 오늘날 존재하는 성벽은 15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중 일부는 오래된 성벽 위에 세워졌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서의 마지막 2세기부터 무슬림이 정복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벽의 대부분에는 이 중요한 고지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고지대는 잘못 시온산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서쪽 언덕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그러나 서쪽

언덕에는 많은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이곳의 다윗의 무덤이자 다락방이 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이 바로 근처에서 가야바의 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온 산 동쪽 경사면, 서부 언덕에 있는 갈리칸투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의 대체 장소입니다. 그러나 19세기와 현대 시대의 발굴 작업을 통해 이 길을 따라 탑과 성벽 일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성벽의 역사는 구약성서의 군주제 시대, 즉 기원전 8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좋아, 우리 여기로 와. 여기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큰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Berkat Sultan이라는 또 다른 대형 수영장이 있는데, 이는 주로 오스만 시대에 사용되었지만 확실히 그보다 훨씬 이전일 수 있습니다. 여기 모델에서 Mishkanot Sha'an Anim 및 Yemen Moshe와 같은 일부 초기 유대인 정착지를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예멘의 모셰(Moshe) 인근에 모세 몬테피오레(Moses Montefiore)는 그곳 농부들의 곡식을 가는 것을 돕기 위해 풍차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19세기에 예루살렘 성벽 밖에 세워진 몇 안 되는 최초의 공동체나 정착지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러시아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머물 때 러시아 지구를 이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880년 오스만 투르크의 통치 하에 있던 당시 예루살렘 성벽 밖에는 건물이 그다지 많이 지어지지 않았습니. 마찬가지로 밤에도 약탈하는 도둑과 도적 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벽 자체를 보면서 실제로 더 오래된 벽 부분을 지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곳을 성채 또는 다윗의 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탑들 중 하나,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탑은 사실 헤롯과 그의 하스몬 가문의 전임자들이 세운 세 개의 탑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메리암네, 히피쿠스, 파사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 중 어느 것이 여기에 남아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날에도 한 탑의 기초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다른 벽돌로 재건되었지만 그것의 낮은 층은 분명히 헤로디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세푸스가 첫 번째 성벽이라고 부르는 곳의 모퉁이였기 때문에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한 지형이 그곳을 향해 경사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방어에 취약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화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성벽은 실제로 성채에서 힌놈 골짜기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서 서쪽 언덕을 둘러싸고, 그 다음에는 남동쪽 언덕을 둘러싸서 거기에 있는 사다리꼴 모양의 단인 성전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기 건너편에 횡단 계곡(Transversal Valley)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 계곡은 이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성채까지 이어지는 횡단 계곡의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 성벽은 원래 기원전 8세기에 완성되었으며, 그 후 아마도 기원전 2세기 말이나 1세기 초에 하스몬 왕조에 의해 재건되었고 그 후 헤롯과 비잔틴 왕조 등이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파괴되고 재건되지 않을 때까지, 또는 대부분이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서쪽 언덕과 남동쪽 언덕을 둘러싸는 부분을 다시 다윗 성이라 불렀습니다.

따라서 헤롯의 세 개의 탑이 있는 바로 이 근처에는 헤롯 대왕의 궁전이 있었는데, 이곳은 현재 아르메니아 지구입니다. 그리고 그 궁전은 1960년대에 발굴되었는데, 불행하게도 보존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지하층에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지금 헤롯의 궁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빌라도가 예수를 군중에게 소개한 장소에 대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그런 일이 여기 바로 모퉁이에 있는 여기 이 지역, 즉 성전산 모퉁이인 비아 돌로로사를 따라 있는 이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이 사건은 이곳 헤롯 궁전 밖에서도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벽 바깥의 이곳 단상에 있는 문을 통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나타나실 것이었습니다. 아래 힌놈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힌놈 골짜기에 있군요.

이는 Via Dolorosa 근처의 전통적인 장소에 대한 대안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진행하면 도시 전체에 대해 설명하고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에 존재하는 도시와 오늘날 존재하는 도시에는 히브리어로 Reveim이라는 4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첫 번째 분기는 아르메니아 분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Zion Gate에서 Jaffa Gate로 이어지는 일종의 정사각형 모양의 분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아르메니아 지구, 기독교 지구입니다. 간단히 말해 정규 기독교 지구는 아르메니아 지구와 만나 이 지역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장소와 매장 장소를 모두 포함하는 그리스도교국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인 성묘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슬림 구역으로 간주되는 성전 산을 포함하여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대략 다마스쿠스 문에서 헤롯의 문을 지나 성전산을 포함하여 계속됩니다. 성전산의 아랍어 이름인 하람 알 샤리프는 성전산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 지구가 남았습니다. 여기 성전 산으로 올라가는 곳이 지금은 통곡의 벽이 되었고 바로 여기 이 지역에서 아르메니아 지구와 만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곳은 후르바 회당(Hurva Synagogue)입니다.

그 중 하나가 Hurva Synagogue입니다. 나는 그것이 두 개의 돔 중 어느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Mugrabi Quarter가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전 플랫폼의 통곡의 벽인 성전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가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인 하 코텔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대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고, 이 모든 건물들에 대한 약간의 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서 1967년 사이에 유대인 지구는 요르단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967년 구시가지를 되찾은 후 유대인 지구 전체를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움 덕분에 이곳은 올드 시티의 가장 멋진 부분이고, 가장 새로운 부분이며, 올드 시티에 지어진 최신 건물입니다.

그러면 성전산(Temple Mount)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성전 산은 헤롯 대왕이 최종 형태로 건설한 사다리꼴 모양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더 많은 수의 예배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더 큰 장소를 확장하고 건설하려는 헤롯 대왕의 요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중앙 또는 티로포에온 계곡 위에 플랫폼의 동쪽, 즉 서쪽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티로포에온 계곡이 실제로 이 아래에 있었고, 그는 그것을 확장하고 바로 위에 지은 다음,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예배자들을 위한 멋지고 평평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채우기로 그것을 채웠습니다. 이 플랫폼의 중앙에는 이슬람에서 세 번째로 성스러운 장소인 바위 돔(Dome of the Rock)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함마드의 말 바라크가 하늘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꾸란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후기 하디스에 속하지만 여전히 이슬람에서 세 번째로 성스러운 곳으로 간주됩니다.

제가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거기에 노출된 기반암은 솔로몬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의 기초 절단면을 보여줍니다. 수년에 걸쳐 이것을 광범위하게 연구한 Leen Rittmeier는 이곳이 성전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성전, 즉 솔로몬 성전과 헤롯이 다시 리모델링한 훗날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의 위치는 바위 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의 또 다른 건물은 알아크사 모스크(Al-Aqsa Mosque)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때 양쪽에 동쪽과 서쪽으로 나 있는 날개가 있었던 매우 오래된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매우 오래된 최초의 이슬람 사원 중 하나이며 확실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매주 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매우 중요한 장소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약성경 제2성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헤롯과 손님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곳의 왕실 주랑(Royal Stoa)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열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기둥과 기둥 머리, 밑부분 중 일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장에서는 할 수 없지만 이곳은 아주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 바깥으로 통하는 관문은 금문인데, 그것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나 그곳은 역시 사찰 터이자 경내입니다. 성전 자체와 물론 지성소.

이제 로마 요새 안토니아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는 기반암이 잘려져 있어서 기반암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요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후기 아치가 있는 에케 호모(Ecce Homo) 유적지로, 그리스도 시대의 것이 아니라 2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아마도 빌라도가 예수를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하드리아누스가 세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여기 안토니아 요새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것이 헤롯의 궁전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이 분야에서 행해졌을 것입니다. 여기 성 안나 교회는 아름다운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십자군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가족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베데스다 연못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이 시기 직후에 백인 교부들이 발굴하여 제대로 발굴되지 않았으나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이나 평신도를 고치셨던 Five Portico 쌍둥이 연못에서였습니다. 현대의, 즉 여기서 관문이라고 해야 할 것은 헤롯의 문 또는

꽃의 문인데,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정문인 다메섹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문은 종종 그 문에서 나오는 도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지입니다. 목적지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다.

자파 게이트(Jaffa Gate)는 다시 서쪽으로 자파로 가는 길입니다. 시온문은 다시 시온산을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뚝 문이 있는데, 이곳은 도시의 쓰레기를 내어 쫓는 도피처였습니다.

이제 이 모델이 만들어진 후에 도시에 또 다른 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문이었는데, 이 문을 통해 사람들은 다마스쿠스나 자파 문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기독교 구역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년이 지나서야 뚝문이 확장되고 근처에 또 다른 보행자용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예루살렘 성문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문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전체적으로 느헤미야 3장에서 처음 언급되었지만 랍비 자료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펠 강을 따라 있는 한 곳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 성문에서 내려오는 길을 따라 있는 오스트리아 호스피스입니다. 분명 1880년에 이미 건축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맘루크와 오스만 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이고 그다지 오래 전의 건물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종종 초기 유적에서 재건되었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시의 맘루크와 오스만 시대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시 19세기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지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당시의 맥락에서 일부 성서적 장소를 지적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 Andrews University에서 하는 것처럼 이 모델을 듣고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른 박물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검은 오벨리스크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본의 사본입니다. 우리는 대영 박물관에 의뢰하여 원본과 똑같은 사본을 만들었고, 이는 다시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7피트 높이의 비석, 즉 오벨리스크입니다. 꼭대기에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고 이 모든 기록 사이와 꼭대기를 따라 설형 문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1846년 영국의 모험가이자 고고학자인 Henry Austin Laird가 Kala라고도 알려진 네오 아시리아의 Nimrud인 Nimrud 유적지를 발굴했을 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발견했고, 놀랍게도 설형 문자가 최근에 해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번역되어 이 본문이 번역되어 기원전 820년경인 18년, 실례합니다, 820년 어느 시점에 살만에셀 3세가 세운 기념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원전 841년에 레반트를 향한 그의 18차 원정을 기념합니다.

살만에셀 3세는 이스라엘 갈멜산에 진을 치고 주변 지역의 모든 왕들로부터 조공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스라엘 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두 번째 기록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염을 기른 사람이 양말 모자를 쓰고 그릇을 들고 있는 살만에셀 3세 앞에 깊이 절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아래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아들 예후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비록 살만에셀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못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님, 이것은 동시대 기념물에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자 확실히 최초의 물리적 묘사입니다. Jehu는 실제로 같은 해 Akuta-Tot에서 Omri 왕조를 전복했습니다.

살만에셀이 나타나자 그는 몸을 굽혀 봉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선물을 주었는데, 이 역시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흥미진진한 발견이었고, 실제로 이스라엘 왕과 앗수르 왕을 묘사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당시 유럽 전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살만에셀 3세는 아마도 호세아 11장에서 베이트 아르벨을 쳐부수고 파괴하고 아시리아 왕들의 전형적인 끔찍한 잔학 행위를 저지른 살만으로 언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에도 성서 고고학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예후와 그가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것을 묘사하는 성서 본문을 다시 한번 완전히 확증해 줍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혼 고고학 박물관 본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옆에는 매우 중요한 구약성서의 기념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메사 비석(Mesha Stela) 또는 모압 비석(Moabite Stela)이라고 불립니다. 이 비석의 원본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에 연락하여 원본과 똑같은 복제품을 제작해 달라고 의뢰했고, 루브르로부터 받은 사본은 오늘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메사 스텔라란 무엇인가요? 1868년에 프레더릭 클라인(Frederick Klein)이라는 성공회 선교사가 요르단 중부인 요르단의 두반(Dubai)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고대 모압의 도시, 유적이거나 그곳을 말해요. 그리고 그는 땅에 누워 있는 이 기념물이나 비석을 보여준 베두인 몇 명을 만났습니다. 클라인은 비석에 적힌 고대 글을 즉시 알아보고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개의 편지와 몇 개의 단어를 복사한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프로이센 의회에 자신이 발견한 사실과 그것을 사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곧 영국인, 프랑스인, 프로이센인 등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이 비석을 손에 넣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두인족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구입하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자세한 내용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안에 금과 같은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그것을 사고 싶어했을 수도 있다는 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무암으로 만든 이 비석을 다시 가열하고 붉게 달군 다음 그 위에 찬 물을 부어 비석 전체를 조각으로 부수었습니다. 글쎄, Charles Clermont-Gounod라는 이름의 프랑스 외교관 슬래시 고고학자는 돌아가서 다양한 베두인 가족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이러한 조각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들의 다른 조각들로 원래 비문의 3분의 2 정도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누군가가 종이를 찢어서 그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종이를 적셔 베두인족이 비문을 파괴하기 전에 전체 비문에 대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압착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는데, 말이나 낙타를 타고 빠르게 다가오는 다른 베두인족의 위협 때문에 빨리 뜯어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조각을 안장가방에 넣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압착된 세 장의 종기와 남아 있는 비석 조각 사이에서 텍스트는 어느 정도 복원되었습니다. 자,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글쎄, 본문은 나는 Debonite 메사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 메사는 모압 왕으로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대략 9세기 2분기 또는 3분기쯤, 대략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그보다 약간 늦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그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성공을 모압 언어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은 오벨리스크에 다시 기록된 841년에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또 다른 기념물인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시 트랜스요르단과 다른 지역의 속국들은 이스라엘의 힘에 약점이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들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메샤는 여러 이스라엘 마을을 정복하고 모압을 북쪽으로, 마다바 평원이나 성서에 나오는 하미 해안까지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와 마을은 메사 비석과 그 유물에 언급되어 있으며 실제로 야훼의 신성한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난로나 여호와의 난로를 빼앗긴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 본문 및 성서 역사와 관련된 많은 중요한 성서 정보뿐만 아니라 다시 갓 지파 인 갓 지파라는 이름과 많은 지명, 많은 도시 이름이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따라서 메샤 비석은 오늘날까지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증언, 즉 성경 본문에 대한 독립적인 증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같은 전쟁에 대한 성경적 설명과 일치하고 보완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히브리어와 매우 유사한 서부 셈어 방언에서 발견된 가장 긴 기념비적인 텍스트입니다. 히브리인과 이스라엘인과 모압인이 분명히 대화하고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훨씬 뒤인 1994년경에 또 다른 프랑스 비문가인 앙드레 르 메어(Andre Le Maire)는 이 비문의 핵심 중 하나인 다윗의 가문을 인식했는데, 이는 다시 비문에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e Maire는 David의 집을 언급한 Tel Dan Stele과 함께 여기 Mesha Stele에서도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텍스트에 대해, 여기에서 Mesha가 언급한 비밀스러운 참조에 대해 여전히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메샤비에 관한 새로운 논문과 연구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학자들은 이 매우 중요한 비문으로부터 레반트의 9세기에 대해 우리에게 계몽하는 정보를 여전히 수집하고 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성서고고학을 강의하는 제프리 허돈 박사(Dr. Jeffrey Hudon)입니다. 이것은 Sigmund H. Horn 고고학 박물관의 하이라이트인 세션 번호 26입니다.